

제40회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대회
第40回 日韓經濟經營國際學術大會

The 4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Japanese Economics and Management

2026. 8.19-21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여수 디오션 리조트

주최 : (사)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전남대학교 HUSS 사업단
主催 : (社)韓日經商学会, 東アジア經濟經營学会, 全南大学校 HUSS (人文社会融合
人材養成事業団) 事業団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공통논제 : AI 시대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共通論題 : AI時代における新しい経済エコシステムの構築とグローバ
ル経済環境の変化への対応戦略**

**Building a New Economic Ecosystem in the AI Era and Response Strategies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주최 : (사)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전남대학교 HUSS 사업단
主催 : (社)韓日経商学会,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 全南大学校 HUSS (人文社会融
合人材養成事業団) 事業団
주관 : (사)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主管 : (社)韓日経商学会,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초대의 글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급격한 등장과 발전은 전 산업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환경 역시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맞물리며 국내외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과 기업경영, 나아가 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은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본은 심각한 구인난(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디지털 전환(DX)과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불균형 역시 한·일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디지털 전환 경험의 공유, 전문인력 교류 확대, 그리고 반도체·배터리·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지역별 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관점에서의 다층적 대응책과 인재 양성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국제공동 학술대회에서는 AI로 인해 촉발된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과 이것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경영 전략을 학제적·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시어 소중한 고견과 정책적 대안을 나눠주시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학문적 결실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사)한일경상학회장 박석강

ご挨拶

近年、AI（人工知能）の登場により、あらゆる産業分野で大きな変化が生じています。同時に、グローバル経済環境は自由化の進展と保護貿易主義の強まりなどを背景に、国内外において大きな転換期を迎えております。こうした変化は、労働市場、企業経営、さらには産業構造全体に新たな対応を求めています。

労働市場の構造に目を向けると、韓国では非正規雇用の増加、若年層の失業、女性のキャリア中断が顕著であるのに対し、日本では深刻な人手不足に直面しております。また、両国ともに製造業を中心とする産業構造から、デジタル転換（DX）や脱炭素化に向けた産業再編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さらに、首都圏集中と地方の人口減少に伴う地域格差の問題は、韓日両国が共有する重要な課題となっております。いまや両国は、DXの経験共有や専門人材交流の拡大をはじめ、半導体・バッテリー・ロボット・バイオなどの新産業分野における技術協力および共同研究開発（R&D）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こうした変革期においては、国家経済および地域経済の産業構造再編が進行しており、これに対処し得る効果的な対応戦略の策定こそが、今後の持続的な発展を左右する重要な課題となっております。とりわけ、国全体および地域ごとの産業構造に生じる変化の速度と範囲を精査した上で、産業全般の戦略を立案するのみならず、地域や国家の枠組みを超え、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多層的な戦略を策定するとともに、人材育成のあり方を検討していくことが強く求められております。

本国際共同学術大会では、AIがもたらす産業構造変化の潮流とそれが両国経済に及ぼす影響を把握し、グローバルな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実効性ある経済・経営戦略について、多角的な観点から学術的・実務的な議論を深めてまいります。

会員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ぜひご参加いただき、貴重なご高見と政策的提言を賜り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本大会が、国家経済および地域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実りある学術交流の場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しております。

皆様のご参加を心より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皆様のご健勝と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2026年8月20日 韓日経商学会 会長 朴 錫強

전체 프로그램

□ 8월 19일(수) 임원회의 및 환영 만찬회

장소: 디오션 리조트 호텔 에메랄드 레스토랑

시간	항목	내용
18:00-18:30	임원회의	한일경상학회 ·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공동협력 논의
18:30-20:00	만찬회	저녁

□ 8월 20일(목) 제40회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대회

장소: 여수디오션리조트 지하2층 세미나실

시간	항목	내용
09:00-09:30	등록	디오션 리조트 지하 2층 거문도 A실 학술대회 접수 및 등록
09:30-11:10	자유논제	Session 1-1: 여수디오션리조트 지하 2층 거문도 A Session 1-2: 지하 2층 거문도 C Session 1-3: 지하 2층 오동도 Session 1-4: 지하 2층 세미나 A
11:20-12:10	자유논제	Session 1-5: 지하 2층 거문도 A Session 1-6: 지하 2층 거문도 C Session 1-7: 지하 2층 세미나 A
12:10-13:10	오찬	여수디오션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13:10-13:45	학회총회	한일경상학회: 거문도 A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거문도 C
13:45-14:00	Coffee Break	
14:00-17:50	공통논제 좌장: 변성우 (AI 시대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여수디오션 리조트 지하 2층 거문도 A
		14:00-14:10 개회사: 박석강(한일경상학회 회장) 개회사: 변성우(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회장) 축사: 김용민(전남대학교 부총장)
		14:10-14:50 기조연설: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공헌: 역사와 사례』 김일태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14:50-15:00 감사패 증정: 이형오(숙명여대) 변성우(토요대학)
		15:00-15:40 발표1: 『韓国の石油・石油化学・化学企業の国際競争力向上のための企業再編』

			稲葉和也(山口大学)
		15:40- 16:20	발표2 : 『DXとAI時代に日韓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鞠重鎬(横浜市立大学)
		16:20- 16:30	Coffee Break
		16:30- 17:30	종합토론 이형오(숙명여대) 변성우(토요대) 사공목(KIET) 한기조(동의대)
17:30- 17:45	폐회	전체 사진 촬영	
18:00- 20:00	만찬회	여수 디오션 리조트 호텔 레스토랑	

□ 8월 21일(금) POSCO 산업시찰

시간	항목	내용
08:20-	호텔 집합	‘여수디오션 호텔’ 집합 및 이동
09:20- 10:20	POSCO	POSCO park1538 역사관
10:20- 11:20	POSCO 산업시찰	POSCO 공장 및 열연공장 견학
11:20- 12:30	이동 및 오찬	이동, 오찬
14:00-	해산	해산(호텔, 여천, EXPO역)

プログラム

□ 8月 19日（水）両学会合同役員会議および歓迎晩餐会

場所：麗水ディオーシャンホテル エメラルドホール

時間	項目	内容
18:00-18:30	合同役員会議	韓日経商学会・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の役員の共同協力を議論
18:30-20:00	歓迎晩餐会	韓定食

□ 8月 20日（木）第40回 韓日経済経営国際学術大会

場所：麗水ディオーシャンリゾート 地下2階 セミナー室

時間	項目	内容
09:00-09:30	登録	麗水ディオーシャンリゾート 地下2階 巨文島(ギョムンド) A 学術大会の受付及び登録
09:30-11:10	自由論題	Session 1-1: 麗水ディオーシャンリゾート 地下2階 巨文島(ギョムンド) A Session 1-2: 地下2階 巨文島(ギョムンド) C Session 1-3: 地下2階 梧桐島(オドンド) Session 1-4: 地下2階 セミナー A
11:20-12:10	自由論題	Session 1-5: 地下2階 巨文島(ギョムンド) A Session 1-6: 地下2階 巨文島(ギョムンド) C Session 1-7: 地下2階 セミナー A
12:10-13:10	昼食	麗水ディオーシャンリゾート ホテル レストラン
13:10-13:45	両国学会の総会	韓日経商学会：巨文島(ギョムンド) A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巨文島(ギョムンド) C
13:45-14:00	Coffee Break	巨文島(ギョムンド) A
14:00-17:50	共通論題 座長：辺成祐 (日本側学会長) (共通論題： AI時代における 新しい経済エコ システムの構築 とグローバル経 済環境の変化へ の対応戦略)	巨文島(ギョムンド) A
		14:00-14:10 開会の辞：朴錫強（韓日経商学会長） 開会の辞：辺成祐（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長） 祝辞：キムヨンミン（全南大学校 副学長）
		14:10-14:50 基調演説：在日コリアン企業の母国貢献：歴史と事例 金逸泰（全南大学校 碩座教授）
		14:50-15:00 感謝状 贈呈 李亨五(淑明女子大学) 辺成祐(東洋大学)
		15:00-15:40 発表2：「韓国の石油・石油化学・化学企業の国際競争力向上のための企業再編」 稲葉和也(山口大学)
		15:40-16:20 発表3：『DXとAI時代に日韓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鞠重鎬(横浜市立大学)

		16:20-16:30	Coffee Break
		16:30-17:30	総合討論及び自由討論 李亨五(淑明女子大学) 辺成祐(東洋大学) 司空穆(KIET) 韓基早(東義大)
17:30-17:45			
17:30-20:00	晩餐会	麗水ディオーシャンリゾート ホテル レストラン 学術大会の場所で韓日交流の時間	

□ 8月 21日（金）産業視察

時間	項目	内容
08:20-	ホテル ロビーに集合	麗水ディオーシャンホテル ロビーに集合 , バスで移動
09:20- 10:20	POSCO	POSCO park1538 (歴史博物館)
10:20- 11:20	POSCO	ポスコ (POSCO) 光陽製鉄所 見学
11:20- 12:30	移動・昼食	バスで移動、昼食
14:00-	解散	ホテルなどで解散

自由論題セッション

《 Session 1-1 》

座長：内橋賢悟(新潟産業大学)

場所: 거문도 A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ベトナムにおける外資企業の新規参入構造と日系企業の位置づけ	黄八洙・安田知絵 (浜松学院大学・日本大学)	曹圭响 (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
2	コンビナートの事業連携における理論的研究と全要素生産性による分析	稲葉和也 (山口大学)	辺成祐 (東洋大学)
3	研究開発投資の効果発現時期と売上高成長：日韓企業における時間差効果の実証分析	曹圭响 (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	安田知絵 (日本大学)
4	日韓化学メーカーの両利き経営の事例研究	金載炅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	宋元旭 (東北学院大学)

《 Session 1-2 》

座長: 安熙卓(九州産業大学)

場所: 거문도 C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スウェーデンの公的年金に見出す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萌芽	小笹礼史 (中央大学大学院)	林成根 (韓国行政研究院)
2	ジョブ型雇用の本質と日本におけるジョブ型雇用の検討	安熙卓 (九州産業大学)	前原ひとみ (山口大学)
3	資本蓄積体制の変容と労働力人口減少の構造的要因	前原ひとみ (山口大学)	島袋隆志 (沖縄大学)
4	電動化時代における自動車メーカーの戦略に関する一考察	金良泰 (宮城大学)	李泰憲 (慶南大)

《 Session 1-3 》

座長: 사공목(KIET)

場所: 오동도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코로나19 이후 북·중 식료품산업 구조적 재편과 시사점	김욱 (건국대)	장홍훈 (순천대)
2	광양만권 철강 물류비압력요인의 계층적 중요도분석: Fuzzy-AHP를 중심으로	이창현 (순천대 무역학과 박사과정)	
3	韓国半導体周辺産業の対米比較優位の動態的変化について	한기조 (동의대) 張天笑 (河南財經政法大)	박석강 (전남대 HUSS사업단)
4	발전국가에서 안보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산업 정책의 유형 변화 비교	김영미, 박명현 (숙명여대)	

《 Session 1-4 》

座長 : 金燦東(忠南大)

場所:세미나실 A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 책임경영형 직무급 제도의 제안	이형오 (숙명여대)	이수진 (성결대)
2	플랫폼의 스트리머 및 플랫폼 특성이 이용자 경험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 (국립히로시마대학)	김길성 (전남대)
3	중소기업의 인증포트폴리오가 공공조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접근성과 거래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상영 (전북대)	
4	정치·문화 국가호감도 불일치가 한·중·일 소비자의 가전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정당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화목 이재은 (국립순천대학)	이상영 (전북대)

《 Session 1-5 》

座長: 鞠重鎬(横浜市立大学)

場所: 거문도 A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企業の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現状と課題	金弘錫 (高崎商科大学)	黄八洙 (浜松学院大学)
2	AI半導体が変えるエコシステム形成プロセス : 競争優位の源泉はどこへ移るのか	千島智伸 (阪南大学)	金良泰 (宮城大学)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 일본 산업구조 변화 비교 연구	김희재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박명현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김옥 (건국대)

《 Session 1-6 》

座長: 鳥居伸好(中央大学)

場所: 거문도 C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市場ベース型資本主義にみる宗教と市場主義の動向	内橋賢悟 (新潟産業大学)	秋保親成 (流通経済大学)
2	宗教の再解釈としての日本経済思想 : 石田梅岩、近江商人、二宮尊徳、渋沢栄一、稲盛和夫の系譜	權五景 (新潟国際情報大学)	鳥居伸好 (中央大学)

《 Session 1-7 》

座長: 林成根 (韓國行政研究院)

場所: 세미나실A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AI와 도시정책	김찬동(충남대)	홍진이(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태현(경남대)
2	일본형 소버린 AI의 형성과 전략적 특성: 미국, 중국, 한국과의 비교분석	박유신(현립히로시마대)	배귀희(숭실대) 박석강(전남대 HUSS사업단)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일경상학회장 박석강입니다. 2026 년 올해 제 40 회 국제학술대회라는 뜻깊은 해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깊은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선배 학자 들께서 이어오신 소명과 책무를 잠시 맡아 수행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40회라는 축적 위에 서서 한일간의 경계를 넘어 관계성을 회복하고 연구 또는 학술 교류의 확장속에 우리 선배 학자들은 경영·경제라는 테두리내에서 학문적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현장과의 치열한 교류를 거치며 한·일 양국의 사회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큰 빛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역시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커켜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 축적의 의미와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에, 경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경영·경제학은 어떤 해법을 제안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학문은 더 이상 연구실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식이 현실을 만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학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영경제학회가 한·일의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단과 집행부가 쌓아온 전통과 성과를 존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를 차분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영경제학회는 학문 공동체의 역사로 보면 이제 한 단계의 축적을 이룬 시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학회 발전은 지금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며, 실현 가능한 과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학회의 방향이자 힘입니다.

오늘 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경영경제학회, 전남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한일경상학회 전임 이형오 회장님, 동아시아 경영경제학회 변성우 학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한일정책연구소 및 일본인 연구자 교수님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年8月20日

한일경상학회장 박석강

開会の辞

皆様、こんにちは。

韓日経商学会会長を務めます、朴錫強でございます。

第40回国際学術大会という節目を迎える意義深い年に、会長の重責を担うこととなり、光栄に存じますとともに、その責務の重さに身の引き締まる思いでございます。この役職は個人の栄誉ではなく、先達から受け継いだ学問的使命を果たし、その成果と精神を次の世代へとつないでいくために託された役割であると認識しております。

40回を数える本学術大会の歩みを振り返りますと、両国間の様々な隔たりを乗り越え、相互理解と絆を深めながら、研究および学術交流の輪を広げてまいりました。

先達の先生方は経営・経済の領域において研究を積み重ね、学問の発展に尽力してこられました。その一つひとつの研究成果は、長年にわたる真摯な研究と討論、そして現場との対話を経て、両国の社会と企業の発展に貢献する知の蓄積へと結実いたしました。本日、私たちが一堂に会するこの場もまた、先人たちのたゆまぬ努力と献身によって築かれたものであり、私はその歴史的な蓄積の重みを深く胸に刻んでおります。

今、時代は私たちに問いかけております。「人工知能が意思決定の中枢を担う時代において、経営の本質とは何か。」「企業の営利追求と社会的価値が対立するとき、私たちはいかなる指針を示すべきか。」「人口減少と地域衰退という構造的な危機を前に、経営学・経済学はどのような解決策を提示し得るのか。」

こうした問いに向き合うとき、学問は決して研究室の中だけで完結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知を現実の課題と結びつけ、その成果を社会の実践に生かしていくこそが、学問が果たすべき社会的責任であります。韓日経商学会、東アジア経営経済学会が、これからの両国の歩みにおいて果たすべき役割も、まさにここに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歴代会長をはじめ執行部の皆様が築いてこられた伝統と実績を尊重し、その確かな基盤の上に立って、いま学会が取り組むべき課題に着実に向き合ってまいります。韓日経商学会、東アジア経営経済学会の歩みは、これまでの蓄積を基盤としながら、さらなる飛躍を目指す新たな段階を迎えております。今後の学会の持続的な発展は、私たち一人ひとりの選択と行動にかかっております。会員の皆様と議論を重ね、意見を共有しながら、実現可能な取り組みを一つひとつ着実に

形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皆様の積極的なご参加とご協力こそが、学会の未来を拓く何よりの力となります。

本日、韓日経商学会、東アジア経営経済学会、ならびに全南大学校人文社会融合人材養成事業団の共同主催による国際学術大会を開催できますことを、誠に喜ばしく存じます。開催に向けて多大なご尽力を賜りました韓日経商学会前会長のイ・ヒョンオ先生、東アジア経営経済学会会長のビョン・ソンウ先生をはじめ、関係者の皆様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また、本大会にご参加いただきました韓日政策研究所の皆様、ならびに日本から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 研究者の先生方を、心より歓迎申し上げます。

本大会が、両国の研究者の相互交流を一層深め、研究成果と知見を共有する有意義な機会となります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そして、これを契機として、今後の学術交流がますます発展することを祈念し、開会の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26 年 8 月 20 日

韓日経商学会 会長 朴 錫強

開会の辞

尊敬する韓日経商学会および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会員の皆様、海の都市麗水市へようこそ。南海岸の拠点都市麗水市は、南海岸中心関門を担当する国際海運都市であり、韓国国家経済の土台である麗水産業団地、栗村産業団地が立地した臨海工業都市でもあります。また、天恵の海洋観光資源を保有する観光都市でもあります。麗水には365の島があります。来る9月から11月まで、麗水世界島博覧会が開催されます。



麗水は前回の大会開催地である山口県宇部市と同様、石油化学産業を中心とした製造業が大きな割合を占めています。製造企業は主に産業団地に集中しており、韓国で数えられる投資地域として浮上しています。石油化学生産量は年間約642万トンに達し、韓国国内生産量の半分を占めています。また、精油生産量も1日80万バレル水準で、国内生産の25パーセントほどを占めています。

今、韓日両国の石油化学産業を含む様々な産業現場でAIの導入と活用を急いでいます。今回の国際学術大会では、AIがもたらす産業構造変化の流れと両国経済への影響を把握し、効果的な対応のための戦略について議論します。活発な学術交流を通じて学問的成果はもちろん、麗水の良い思い出もたくさんつく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今回の大会は、第40回韓日経済経営国際学術大会であり、とても記念すべき大会でもあります。韓日経常学会と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は去る1985年第1回大会開催を皮切りに絶えず国際学術大会を開催してきました。両国間の学術交流で経済経営の発展をリードする努力は今後も続くでしょう。

今回の学術大会開催のために多くの準備をしてくださった朴錫強韓日経商学会会長とアン・ジェウク事務局長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全南大学校の人文社会融合人材養成事業団（HUSS）にも感謝の言葉を上げます。

2026年8月20日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会長 辺成祐

개회사

존경하는 한일경상학회 및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해양도시 여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해안의 거점도시인 여수는 남해안의 중심 관문을 담당하는 국제 해운도시이자, 한국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울촌산업단지가 자리한 임해공업도시입니다. 또한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수에는 365개의 섬이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수는 지난 대회 개최지였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업들은 주로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수는 한국의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연간 약 642만 톤에 달해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 생산량 또한 하루 약 80만 배럴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AI가 초래하는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여수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제40회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대회로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일경상학회와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는 198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학술교류를 통해 경제·경영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석강 한일경상학회 회장님과 안재욱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20일

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회장

변성우

2026 한일경상학회, 동아시아 경영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 Session 1-1 》

座長：内橋賢悟(新潟産業大学)

場所: 거문도 A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ベトナムにおける外資企業の新規参入構造と日系企業の位置づけ	黄八洙・安田知絵 (浜松学院大学・日本大学)	曹圭响 (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
2	コンビナートの事業連携における理論的研究と全要素生産性による分析	稲葉和也 (山口大学)	辺成祐 (東洋大学)
3	研究開発投資の効果発現時期と売上高成長：日韓企業における時間差効果の実証分析	曹圭响 (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	安田知絵 (日本大学)
4	日韓化学メーカーの両利き経営の事例研究	金載炅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	宋元旭 (東北学院大学)

ベトナムにおける外資企業の新規参入構造と日系企業の位置づけ

黄八洙（浜松学院大学）・安田知絵（日本大学）

ベトナムでは外資系企業の参入が進む一方、その構成は国・地域、事業分野・拠点形態、進出先地域によって多様化している。従来の対ベトナム外国投資研究では、投資金額や認可案件を中心とする分析が多く、新たに参入した企業の広がりや、主要国・地域間の構成差については十分に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とりわけ、中国系企業が新規参入において大きな比重を占めるなかで、日系企業が新たな参入構造のなかでどのような位置にあるのかを、相対的に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

そこで本研究は、2025年にベトナムで新規ライセンスを取得した外資系企業の個票データを用い、国・地域別、事業分野・拠点形態別、進出先地域別の構成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さらに、中国、韓国、日本、台湾の主要4か国・地域を比較し、日系企業の事業分野・拠点形態および立地上の相対的特徴を検討する。分析では、件数、構成比およびクロス集計によって新規ライセンス取得企業の全体構造を把握した。次に、主要国・地域と事業分野・拠点形態および進出先地域との関連について、カイニ乗検定、クラメールのV、調整済み標準化残差を用いて検討した。また、日系企業の構成比を外資系企業全体の構成比と比較するため、特化係数を算出した。

主に以下の分析結果が得られた。まず、新規ライセンス取得企業は、中国系企業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の国・地域に集中していた。次に、事業分野・拠点形態では、製造業が最大である一方、卸売・小売、専門・事業支援、宿泊・飲食、情報通信などの非製造業分野にも広く分布していた。また、進出先については、ホーチミン市をはじめとする大都市および主要工業集積地域への集中がみられた。さらに、主要4か国・地域を比較した結果、国・地域と事業分野・拠点形態および進出先地域との間には、いずれも統計的に有意な関連が確認された。

日系企業については、件数ではホーチミン市が最大の進出先である一方、外資系企業全体との比較では、ハノイ市やダナン市への相対的な集中がみられた。また、事業分野・拠点形態では、専門・事業支援、情報通信、駐在員事務所の構成比が相対的に高く、製造業の構成比は相対的に低かった。この結果は、2025年の新規参入局面において、日系企業が製造拠点の新設だけでなく、既存事業を支える企業支援、情報通信、情報収集、連絡・調整などの機能を担う都市型拠点に相対的な特徴を有していた可能性を示唆する。ただし、これは日系企業全体の製造業からサービス業への転換や、立地選択の因果関係を直接示すものではなく、今後検証すべき解釈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本研究の意義は、投資金額ではなく、新規ライセンス取得企業の件数と属性に着目することにより、企業、事務所、サービス拠点などを含む新規参入の広がりを捉えた点にある。本研究が把握するのは、資本規模や雇用創出規模ではなく、新規ライセンス取得という参入行動の件数面での広がりである。また、国・地域、事業分野・拠点形態、進出先地域を個票レベルで結びつけることにより、主要国・地域ごとの参入構造の違いを示すとともに、日系企業の位置づけを相対的に明らかにした。

ただし、本研究は2025年の単年データに基づくため、観察された特徴が長期的な構造を示すのか、当該年に固有の現象であるのかを判別することはできない。また、投資金額、雇用規模、売上高、出資比率などの情報を含まないため、件数面の優位が投資規模や経済的効果の優位を意味するとは限らない。加えて、事業内容を十分に特定できない企業も存在し、ライセンス上の国・地域区分が最終的な資本所有者を必ずしも反映しない可能性もある。今後は、複数年デ

一タによる時系列比較、企業属性や投資規模との接続、事業分類の精緻化、資本の最終的な所有関係の把握、ならびに既存進出企業と新規参入企業との比較を進め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ベトナム、外資系企業、新規参入、日系企業、進出先地域、特化係数

コンビナートの事業連携における理論的研究と全要素生産性による分析

稲葉和也（山口大学大学院技術経営研究科）

1950年代の形成期から現代まで日本のコンビナートは発展を遂げてきた。コンビナートという事業形態は日本において歴史的に発展してきた独自のビジネスモデルである。このビジネスモデルに経済性や競争力があるのかどうかについて質的（理論的）、量的分析をこれまで行ってきた。

歴史的経緯の観点から各コンビナートの形成と発展とを考察し、コスト・リーダーシップ戦略と製品差別化戦略との同時追及を実行することができる経済性を持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のようなコンビナートの経済性について「結合の経済」と名付けてその理論的分析を行った。しかしながら、世界の石化・化学会社と競争力を量的に比較しなければ、経済的に優れた事業形態であるのか、そうでないのかは判然としない。そこで数量的に比較できる指標を考慮した結果、全要素生産性（Total Factor Productivity TFP、以下「TFP」）の測定モデルを仮定して比較を行った。経済性や競争力を比較するためには売上高などの規模や利益率などの財務・会計的な分析が従来行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が、資本や労働のみならず生産や製造プロセスの効率性やイノベーション（技術革新）の有無を確認するためにTFPを採用した。そこでは、日本におけるコンビナート参加企業（主に石油化学工業協会加盟企業）と諸外国の企業（韓国、欧米、その他の世界の石化・化学会社）のTFPを割り出して生産性の観点から国際競争力を比較した。

石化・化学産業の発展史に関してはこれまで多くの研究がある。技術導入を中心に通史を述べた工藤(1990)、各コンビナートの形成と発展史を概説した水口(1999)、世界の動向も踏まえながら日本の石油化学産業の発展史を説明した大東(2014)などがある。また、コンビナートにおける企業発展史を中心にその歴史的展開を考察した先行研究も多くある。しかしながら、石化・化学産業の歴史的発展をTFPを用いて数量的に分析し、コンビナートの競争力を国際的に比較した研究はなかった。

本論文では、コンビナートの事業連携における理論的研究と全要素生産性による分析の結果を示してコンビナートの経済性と競争力について考察した。コンビナートの事業連携における質的（理論的）・量的分析から、日本のコンビナート参加企業は経済性と競争力が比較的高いと結論づけることができた。

キーワード：コンビナート、事業連携、分離の経済、結合の経済、全要素生産性(TFP)

※本研究はJSPS科研費JP24K05111「コンビナートに関する応用経営史に基づく理論的研究と全要素生産性による国際比較分析」（代表・稲葉和也）の成果の一部である。

研究開発投資の効果発現時期と売上高成長 ：日韓企業における時間差効果の実証分析

曹 圭响（共愛学園前橋国際大学）

本研究は、研究開発（R&D）投資と売上高成長との関係が現れるまでの時間差を、日本企業と韓国企業の比較を通じて検証する。韓国のDARTおよび日本のNIKKEI Financial Questから得た2017～2025年の企業開示データ4,350企業年（759社）を用い、売上高増収率を従属変数、R&D比率の当年値（L0）および1～4年前値（L1～L4）を説明変数として推定した。増収率とR&D比率は国別の1・99パーセンタイルでWinsor化し、全体モデルでは国・企業規模・年、国別モデルでは企業規模・年を統制した。標準誤差にはHC3を用いた。主分析の結果、L0は全体・両国とも有意ではなかった一方、全体ではL1～L3、日本ではL1～L4、韓国ではL1およびL3が5%水準で正に有意であった。なお、韓国のL2は10%水準で有意であった。日韓の係数差はL1のみ10%水準で確認され、企業固定効果モデルでもL1の正の関係は維持された。以上から、R&D比率と売上高成長との正の関係は当年ではなく1年後から確認され、概ね3年後まで続くこと、日本では4年後にも持続する可能性が示された。この結果は、R&D投資を単年度ではなく複数年で評価する必要性を示唆する。ただし、本分析が示すのは因果効果ではなく条件付き相関である。

キーワード：研究開発投資、売上高成長、時間差効果、日韓比較、企業パネルデータ

日韓化学メーカーの両利き経営の事例研究

ー三菱ケミカルグループとLG化学の比較ケーススタディー

金 載炅 Jaekyung KIM (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会員)

本研究は、資本集約性と高度な総合技術力を要する成熟素材産業において、企業が次世代成長事業へシフトする際のポートフォリオ戦略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分析対象として、日韓を代表する総合化学メーカーである三菱ケミカルグループとLG化学を取り上げ、既存事業における「知の深化」と新規事業における「知の探索」を両立させる「両利きの経営」の視点から比較分析を行った。さらに、製品アーキテクチャと価値獲得、技術経営（MOT）の観点を取り入れ、事業シフトで有効に機能するガバナンス構造についても考察した。

本研究の分析では、両社の事業ポートフォリオの変遷に関する定性分析に加え、1995年から2025年までの売上高、営業利益、売上高研究開発費比率、および特許共同出願比率（JPFR）を用いた定量分析を行った。両社はともに中国企業による大規模設備増強と供給過剰や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トレンドを背景として、2023年から祖業である「石油化学事業」が構造的な収益悪化で赤字を記録している。一方、既存コア事業の収益低下を補完して新たな成長事業の育成において対照的な成果とリスクを生じさせた。

三菱ケミカルグループは、石油化学事業からの完全撤退ではなく、他社との共同運営を通じた再編を選択した。また、次世代電池素材である電解液事業は、UBEとの合併会社「MUアイオニック」を設立し、企業境界の開放度を中程度に保つことで、投資リスクの分散を図った。しかし、リスク抑制に寄与した一方、市場のモジュール化と価格競争により、収益性が低下する「コモディティ・トラップ」に直面した。そこで市況に左右されない安定収益源の確保と石化事業の効率化（ダウンサイジング）を同時に進めるため、2014年には産業ガスの最大手「大陽日酸（現、日本酸素HD）」を買収し、現在グループ全体利益の5～6割を占める大きな転換点であった。

これに対しLG化学は、コア事業の石油化学事業の組織論理が新規事業の意思決定速度を阻害することを避けるため、2020年に電池事業を分社化し、2022年にLG Energy Solutionを上場させた。大規模な外部資本を調達するとともに、グローバル自動車メーカーとの合併事業を積極的に展開し、連結売上高を大幅に拡大させた。さらに、近年の石油化学事業の収益悪化局面においても、子会社の利益を連結ベースで取り込む資源還流構造を構築した。他方、企業境界を大きく開放した結果、EV市場の減速や価格競争の影響を直接受け、連結収益性が急低下する「ボラティリティ・トラップ」に陥った。

成熟産業の事業転換に普遍的な最適解は存在しないが、その成否は、産業エコシステムの変化、市況のタイミング、企業が選択する組織境界の相互作用によって規定されることが示された。

キーワード：日韓の総合化学メーカー、三菱ケミカルグループ、LG化学、事業転換、成長投資

《 Session 1-2 》

座長: 安熙卓(九州産業大学)

場所: 거문도 C

시간: 09:30~11:10

	논문제목 論文タイトル	발표자 発表者	토론자 討論者
1	スウェーデンの公的年金に見出すベ ッ クインカムの萌芽	小笹礼史 (中央大学大学 院)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2	ジョブ型雇用の本質と日本におけるジョ ブ型雇用の検討	安熙卓 (九州産業大学)	前原ひとみ (山口大学)
3	資本蓄積体制の変容と労働力人口減少の 構造的要因	前原ひとみ (山口大学)	島袋隆志 (沖縄大学)
4	電動化時代における自動車メーカーの戦 略に関する一考察	金良泰 (宮城大学)	李泰憲 (慶南大)

スウェーデンの公的年金に見出すベーシックインカム萌芽

小笹礼史（中央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経済のグローバル化や脱工業化の進展は、労働環境を大きく変容させている。その結果、国民の生存権保障を政策目的として掲げている現代の社会保障制度は、労働市場の「安定性」（と家族のケア）を前提としているため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また、とりわけ先進諸国において、長期停滞に伴う非正規雇用労働者の増大や、近年のプラットフォームワークをはじめとする新しい就労形態の拡大は、既存の社会保障制度によるセーフティネットからは漏れ出してしまう人びとの生活保障という新たな課題を浮上させている。

日本においては、市場と密接にかかわりつつ生活リスクに対処する社会保障制度の代替案として、すべての個人に対し、無条件かつ定期的に、一定程度の所得を給付する所得保障構想であ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以下、BIと略記）が、2000年代初頭から議論されるようになった。ただし、BIを単なるユートピア的な代替策ではなく、歴史的な社会保障制度の発展プロセスの中に位置づけるためには、資本主義経済の発展において普遍主義的な制度がどのような歴史的・構造的必然性を持って生じるの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すなわち、既存の社会保障制度の内部に、BIの萌芽が内包されていることを理論的に示す必要がある。

そこで本報告では、社会保障制度の普遍主義化という歴史的動向に着目し、既存の社会保障制度とBIの制度的連続性を考察する。分析対象として、普遍主義的福祉国家の典型とされるスウェーデンの年金制度を取り上げる。同国の公的年金制度を、「拠出原理」、「労働との結びつき」、「普遍性」という三つの分析軸から検討し、いかにしてBIの理念や実現へ接続し得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現代の生存権保障問題への示唆を得ることを目的とする。

スウェーデンの公的年金史は、所得比例原理（市場原理）の厳格化と、普遍主義化との間での、一進一退の相克のプロセスであったと捉え直すことができるが、とりわけ近年の動きに着目すると、スウェーデンの公的年金制度が有する限界と、直面している矛盾が明確に浮かび上がる。それは、労働と強く結びついた保険原理を貫徹し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制度から排除される層を救済するための、無拠出制がゆえに選別主義的な給付を拡大せざるを得ず、それが保険原理そのものの正統性を内側から空洞化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だからこそ資本主義下の社会保険というシステム内部に見出すことができる「普遍性の萌芽」を育てること、すなわち、市場原理や労働から一定程度離脱する「脱商品化」という方向での改革こそが、この内在的矛盾を克服する道筋となる。そして、この普遍主義化を極限まで押し進めた理論的完成形態こそが、無条件かつ一律での生存権保障を体现するBIに他ならない。

キーワード：資本主義経済、ベーシックインカム、スウェーデン、普遍主義、年金制度

ジョブ型雇用の本質と日本におけるジョブ型雇用の検討

安 熙卓(九州産業大学)

本研究は、ジョブ型雇用の制度的特徴を明らかにし、日本で進められているジョブ型雇用との相違点を検討することである。さらに、アメリカ型ジョブ型雇用の本質を踏まえ、日本企業における導入可能性と課題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近年、日本では「ジョブ型雇用」が雇用・人事改革のキーワード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少子高齢化による労働力不足、グローバル競争の激化、働き方の多様化などを背景に、多くの企業が従来のメンバーシップ型雇用からジョブ型雇用への転換を模索している。しかし、日本で語られるジョブ型雇用は必ずしもその概念や運用はアメリカ型とは必ずしも一致していない。ジョブ型・ジョブ型雇用という言葉自体明確な定義がなされてないまま、論者によって捉え方が一様ではなく言葉だけが一人歩きすることも散見される。

日本型雇用とアメリカ型ジョブ型雇用は、人材管理の考え方において大きく異なる。日本型雇用は「メンバーシップ型雇用」と呼ばれ、職務ではなく「人」を中心に雇用する制度である。一方、ジョブ型雇用は「職務」を基準に人材を採用・配置する制度であり、職務内容を明確に定めた上で雇用契約が結ばれる。

日本型雇用では、新卒一括採用を行い、長期雇用を前提として従業員を育成す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入社時には職務を限定せず、企業内で配置転換やジョブローテーションを繰り返しながら幅広い業務経験を積ませることで、組織全体を理解した人材を育成する。この仕組みは、終身雇用や年功序列賃金と密接に結び付いており、企業への帰属意識を高め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

これに対して、ジョブ型雇用では採用時点で職務内容がジョブ・ディスクリプションによって明確に定められ、その職務を遂行する能力を有する人材を採用する。賃金や評価も職務の価値や成果を基準として決定されるため、勤続年数や年齢は関係ない。また、専門性を重視するため、従業員は自身の能力を高めながら転職によってキャリアを形成す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

以上のように、日本型雇用とジョブ型雇用は、人材管理の基本的な考え方が大きく異なる。ジョブ型雇用は、専門性の向上や成果に応じた公平な評価を実現しやすいという利点がある一方で、日本企業が長年培ってきた長期雇用や企業内育成との間には少なからず摩擦が生じる。そのため、日本企業においてアメリカ型ジョブ型雇用への完全移行は困難であり、ジョブ型雇用をそのまま導入するのではなく、日本型雇用の長所を維持しながら職務の明確化や成果評価を取り入れる「日本型ジョブ型」、すなわちメンバーシップ型とジョブ型を融合したハイブリッド型の構築が現実的な方向性であ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ジョブ型雇用、メンバーシップ型雇用、ジョブ・ディスクリプション、ハイブリッド型

【付記】本研究は、JSPS科研費26K05104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ある。

資本蓄積体制の変容と労働力人口減少の構造的要因

前原ひとみ 山口大学

日本経済は、1970年代以降、長期的な経済停滞の局面にある。少子化による労働力人口の減少や、非正規雇用労働者の増大は、日本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本研究では、資本主義の構造的要因との関連で、労働力人口の減少を考察する。

戦後日本の労働市場を支えた日本的雇用慣行は、終身雇用・年功序列賃金・企業別労働組合を基盤とし、高度経済成長を可能にした。しかし、この雇用慣行は、戦後から1980年代頃にかけて、男性の長時間労働を女性の無償ケア労働が支えるという性別役割分業を前提としていた。すなわち、男性の賃金によって世帯が維持され、女性は扶養されながら無償ケア労働を担うことで、労働力の再生産は女性の無償ケア労働に大きく依存していた。

1990年代以降、日本経済は平成不況に突入し、グローバル化の進展や新自由主義政策の影響を受け、短期的な利潤追求を重視する減量経営へと転換した。その結果、設備投資だけでなく人件費削減も進められ、非正規雇用の拡大、女性の就業拡大、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などを通じて、労働力の柔軟化が推進された。一方、女性の就業機会は拡大したものの、女性は低賃金のまま労働市場へ組み込まれたため、男女間の賃金格差は維持された。また、長期的に実質賃金が伸び悩む過程で、女性労働力は既存の性別役割分業を前提とした低賃金労働力として労働市場に組み込まれた。その結果、無償ケア労働の負担は依然として女性に集中し、就業との二重負担が生じるとともに、女性労働者に占める非正規雇用の割合は高い水準にある。非正規雇用労働者の増大は、資本の中位の増殖欲求に対して過剰な人口である「相対的過剰人口」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この存在は、正規雇用労働者にとっても圧力となり、労働条件や労働環境の改善を妨げる要因となる。相対的過剰人口としての非正規雇用の拡大は、女性のキャリア形成を阻害するだけでなく、男性の長時間労働の常態化にもつながっている。さらに、こうした雇用形態の変容、低賃金労働の拡大、無償ケア労働の女性への固定化、長時間労働の常態化は、家族形成や次世代労働力の再生産をめぐる困難をも生じさせ、労働力人口の減少をもたらす構造的要因の一つ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

このような資本蓄積体制の再編のもとで、無償ケア労働負担の偏在、男性の育児休業取得率の低迷、出産・育児後の女性の非正規化など、労働力の再生産をめぐる課題が顕在化している。制度面では、男女雇用機会均等法、育児休業法、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労働契約法などが整備されてきたものの、長時間労働を前提とする雇用慣行はなお残存している。

本研究では、日本経済の長期停滞をもたらす一要因として、非正規雇用を中心とした労働力の柔軟化を特徴とする資本蓄積体制の再編と、労働力再生産をめぐる構造的な困難との関連性を考察した。その結果、労働力人口の減少は、資本蓄積体制の再編過程において生じた労働力再生産の困難と関連する現象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示した。

キーワード：長期経済停滞、資本蓄積、労働力の再生産、労働力人口、相対的過剰人口

電動化時代における自動車メーカーの戦略に関する一考察

宮城大学 金 良泰

近年、自動車産業は電動化の進展をはじめ、デジタル技術の発展や環境規制の強化などを背景として、大きな構造転換期を迎えている。このような経営環境の変化は、自動車メーカーに対し、製品開発のみならず、研究開発、サプライチェーン、企業間連携など、経営戦略全体の見直しを求めている。

一方、自動車メーカーは、それぞれ異なる経営資源や市場環境のもとで電動化への対応を進めており、その戦略には多様な特徴がみられる。また、電動化は企業の事業構造や競争環境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おり、従来の競争優位のあり方を再検討する必要性が高まっている。そのため、自動車メーカーの戦略を個別の技術開発としてではなく、経営戦略全体の視点から考察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本研究では、電動化時代における自動車メーカーの戦略的対応に着目し、企業を取り巻く経営環境の変化と、それに対応する経営戦略の方向性について考察する。また、電動化が企業経営に与える影響を整理するとともに、自動車メーカーが持続的な競争優位を確立するために求められる戦略について検討する。

《 Session 1-3 》

座長: 사공목 (KIET)
09:30~11:10

場所: 오동도

시간:

	논문제목 論文タイトル	발표자 発表者	토론자 討論者
1	코로나19 이후 북·중 식료품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시사점	김옥 (건국대)	장홍훈 (순천대)
2	광양만권철강 물류비압력요인의 계층적 중요도분석: Fuzzy-AHP를 중심으로	이창현 (순천대 무역학과 박사과정)	
3	韓国半導体周辺産業の対米比較優位の動態的変化について	한기조 (동의대) 張天笑 (河南財經政法大)	박석강 (전남대 HUSS사업단)
4	발전국가에서 안보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산업 정책의 유형 변화 비교	김영미, 박명현 (숙명여대)	

코로나19 이후 북·중 식료품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시사점

김욱(전국대)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중 양방향 교역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식료품 산업의 구조적 재편 양상과 그 경제적·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다. 최근 북·중 무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27억 달러 규모를 회복하며 급격한 정체기에서 벗어났으나, 이는 단순한 정량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자원 수출 중심에서 식품·생활소비재·가공품 중심의 민생·경공업 축으로 무역 구조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 재편의 핵심 동인은 북한의 국가 정책인 '20×10 지역개발정책'과 대외 환경적 요인 간의 결합에 있다. 북한은 시·군 단위 식품 가공 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추진함으로써 식료품 산업을 지방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산업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인도적 제재 면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 외화 확보 창구로 이용하는 이중 전략(Dual Strategy)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식료공장(예: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중심으로 ISO 22000 등 국제 식품안전 관리체계 인증을 표기하고 지퍼백 패키징·열량 표기 등 디자인 및 포장의 표준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국 시장 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B2B 마케팅을 겨냥한 전략적 적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위챗(WeChat) 등 중국 현지 디지털 무역 플랫폼 및 접경지역 유통망을 결합하여 가공품의 유통 최적화를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 북·중 식료품 산업의 변화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자본·유통 통제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제한적 개방'과 '내재적 산업화'를 병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선 경제특구 및 북·중·러 접경 물류 네트워크와 결합된 식료품 산업의 가공·수출형 고도화 경향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모델 구상 및 동북아 접경지역 경제 질서 재편을 전망하는 데 있어 방향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Keywords): 북·중 무역, 식료품 산업, 20×10 지역개발정책, 현지 가공형 산업화, ISO 22000, 접경 물류, 동북아 경제협력

Hierarchical Importance Analysis of Steel Logistics Cost-Pressure Factors

in the Gwangyang Bay Area: A Fuzzy-AHP Approach

**광양만권 철강 물류비 압력요인의 계층적 중요도 분석
: Fuzzy-AHP를 중심으로**

Chang-Hyun Lee (이창현)

Purpose: This study develops a hierarchical framework for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the factors that place upward pressure on steel logistics costs in the Gwangyang Bay area. It addresses the gap between steel-logistics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processes and port studies focused on general competitive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Fourteen core studies are first classified by six proposed criteria. Based on this review, six criteria and eighteen subcriteria are organized. After content validation, a pairwise-comparison survey of approximately 30 experts will be conducted. Fuzzy-AHP will then convert expert judgments into relative weights and rankings.

Results: As an initial result, overlapping content coding of the fourteen studies identified local logistics in eleven studies and international transport and energy/operating costs in five studies each. Trade, demand, and FX/finance factors were less directly examined. Based on this pattern, ocean freight, inland transport, port congestion and waiting, fuel, and handling costs are expected to rank highly, subject to the later expert survey.

Implications: The current findings are literature-based preliminary results, not completed survey weights. The subsequent survey will test whether the literature's emphasis on local and direct costs is shared by steel producers, logistics firms, port institutions, and trade specialists.

Keywords: Steel Logistics Cost, Gwangyang Bay, Fuzzy-AHP, Port Logistics, Priority Analysis

韓国半導体周辺産業の対米比較優位の動態的変化について

韓基早(東義大學)

張天笑(河南財經政法大學)

〔要旨〕

本研究は、2010～2023年の韓国半導体周辺産業の対米貿易を対象に、産業貿易ボックス（ITB）と調整済み要素調整圧力（Adjusted FAP）を用いて、装備・素材・部分品の比較優位変化と調整圧力を分析した。分析の目的は、単純な比較優位・劣位の判定を超えて、品目別の輸出特化・輸入依存構造を把握し、政策対応の方向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分析結果、韓国半導体周辺産業は、全体としてNXとNMが併存する二重構造を示した。装備部門では、一部の検査装備や加工装備で輸出競争力の改善がみられる一方、核心製造装備では依然として輸入依存が強く、高い調整圧力が確認された。素材部門では、品目数基準で比較劣位品目が多く、核心輸入素材を中心にNM・高FAP構造が目立つため、供給網上のボトルネックが大きい。ただし、一部素材では低FAPまたは比較優位への転換もみられ、全面的な脆弱性とはいえない。部分品部門では、NX中心の比較優位が比較的安定しており、一部核心品目が輸出競争力を支えている。しかし、一部品目では高FAPも確認されるため、技術転換や生産要素の再配分圧力として解釈する必要がある。したがって、韓国は品目別に国産化・輸入代替・技術転換・輸出高度化を区分して対応する必要がある。

발전국가에서 안보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산업정책의 유형변화 비교 (Work in Progress)

숙명여자대학교 김영미
숙명여자대학교 박명현

반도체는 오늘날 전 산업에 걸쳐 필수적인 중간재로서, 최근 AI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가치사슬은 설계, 제조, 테스트 및 패키징, 소재·장비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분절되고 전문화된 구조를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제품별 생산 집중과 상호 의존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공급망 충격이 다수의 산업과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시장 효율성과 산업 육성을 중시하던 전통적 접근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가치사슬의 핵심 생산 거점이면서도 국가별 전문화 영역과 산업정책의 전개 경로가 상이하다. 예컨대,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파운드리, 일본은 소재·장비의 강세, 대만은 TSMC 중심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로 대표된다. 이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이 설명하는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유산을 공유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발전국가형, 기업국가형, 안보주도형으로 유형화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 정책이 어떠한 유형적 조합으로 나타나며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의 K-반도체 전략과 K-칩스법, 일본의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및 라피더스 설립 지원, 대만의 産業創新條例 개정 등 정부 정책문서와 법령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분석을 수행하며, 각국 정책수단을 유형별 코딩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국가 및 시기 간 비교를 진행한다.

기존 연구는 개별 국가의 정책 전략 분석이나 국가 간 무역데이터 비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발전국가형, 기업가형, 안보주도형의 유형론을 3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 적용한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3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이 발전국가형에서 안보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반도체 산업정책 연구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Session 1-4 》

座長 : 김찬동(충남대)

場所: 세미나실 A

시간: 09:30~11: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 책임경영형직무급 제도의 제안	이형오 (숙명여대)	이수진 (성결대)
2	플랫폼의 스트리머 및 플랫폼 특성이 이용자 경험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 (국립히로시마대학)	김길성 (전남대)
3	중소기업의 인증포트폴리오가 공공조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접근성과 거래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상영 (전북대)	
4	정치·문화 국가호감도 불일치가 한·중·일 소비자의 가전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 정당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화목·이재은 (국립순천대학)	이상영 (전북대)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책임경영형 직무급 제도의 제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형오

1980년대 일본경제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 그 성공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던 것이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적 경영이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일본기업의 경쟁력 또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그 극복방안으로서 아메바 경영과 직무급 제도를 기반으로 한 ‘책임경영형 직무급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 중 아메바 경영과 직무급 제도에 주목하여, 교세라, 히타치제작소, 소니 3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가 제안한 경영방식인데, 이는 조직을 소규모 단위의 아메바로 구성하여 각 아메바가 조직 차원에서 책임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직무급 제도는 회사 업무를 개별 직무별로 규정하고, 각 직무에 맞게 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직무급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는 히타치제작소와 소니를 들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책임경영형 직무급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조직 차원에서는 아메바 경영방식으로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무급을 적용하여 업무량에 상응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일본적 경영에 관한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공헌점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로서 이해관계자 관점을 제시하고,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실제 기업들이 취한 대책으로서 아메바 경영과 직무급 제도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히타치제작소 및 소니의 직무급 제도를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일본적 경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아메바 경영과 직무급 제도 양쪽을 통합한 모델인 책임경영형 직무급 제도를 제시한 후, 본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한다.

플랫폼의 스트리머 및 플랫폼 특성이 이용자 경험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승현 (국립히로시마대학)

연구배경

숏폼은 수초에서 수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빠르고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콘텐츠 형식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정착 2025년 유튜브 쇼츠의 일일 평균 조회수가 2,000억 회를 넘어선 사실에서도 숏폼 이용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음(Mohan, 2025). 숏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콘텐츠 경험을 형성하는 스트리머와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해짐

이에 숏폼 콘텐츠에서 이용자의 몰입과 동경을 형성하고, 만족과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

연구목적

스트리머 특성: 정보성, 공감성, 매력성

플랫폼 특성: 상호작용성, 직관성

스트리머와 플랫폼 특성이 몰입경험 및 동경경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몰입경험과 동경경험이 시청만족도 및 행동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연구 필요성

기존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특성이나 플랫폼 이용의도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음
본 연구는 스트리머 특성과 플랫폼 특성을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통합적으로 분석

숏폼 이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몰입경험과 동경경험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반응과 행동
결과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용자의 시청만족도와 행동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숏폼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전략을 제시

중소기업의 인증포트폴리오가 공공조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접근성과 거래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상영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인증포트폴리오와 개별 인증이 공공조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공공조달자료를 기업 단위로 재구성하여 3,013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공공조달 성과는 총계약금액, 거래기관수, 계약건수, 제품다양성, 기관당평균계약금액 및 계약당평균계약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증포트폴리오는 계약당평균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달성과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개별 인증의 효과는 성과지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증의 축적이 개별 계약의 규모 보다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시장 접근과 거래범위 확대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며, 인증의 수 뿐만 아니라 유형과 구성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Keyword: 공공조달, 중소기업, 인증포트폴리오, 시장접근성, 거래확장성

정치·문화 국가호감도 불일치가 한·중·일 소비자의 한국 가전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정당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화목 · 이재은(국립순천대학교)

목적: 본 연구는 정치적 호감도와 문화적 호감도의 불일치가 구매정당화를 매개하여 한국 가전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론의 디커플링(Decoupling) 개념을 소비자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적용하여, 정치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간 호감도 우위 불일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구매정당화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자료/방법론: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량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한국(155명), 중국(159명), 일본 소비자(166명) 48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치적·문화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가 구매정당화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표본에서 문화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는 한국 가전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낸 반면, 정치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문화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가 구매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전체표본 수준에서는 구매정당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구매정당화 자체는 구매의도에 강한 직접효과를 보여 구매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기능하였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한국 소비자 표본에서는 문화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일본 소비자 표본에서는 문화적 호감도 우위 불일치가 구매정당화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정치·문화 호감도 불일치와 구매정당화의 관계가 국가별 소비자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시사점: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호감도를 정치적·문화적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그 불일치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국가이미지 및 원산지효과 연구에 이론적 확장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 국가 간 정치적·문화적 인식 격차와 그에 따른 소비자 심리 기제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국가호감도, 정치적 호감도, 문화적 호감도, 구매정당화, 가전제품 구매의도, 한·중·일 소비자

《 Session 1-5 》

座長: 鞠重鎬(横浜市立大学)

場所: 거문도 A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企業の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現状と課題	金弘錫 (高崎商科大学)	黄八洙 (浜松学院大学)
2	AI半導体が変えるエコシステム形成プロセス : 競争優位の源泉はどこへ移るのか	千島智伸 (阪南大学)	金良泰 (宮城大学)
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 일본 산업구조 변화 비교 연구	김희재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박명현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김욱 (건국대)

企業の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現状と課題

金 弘錫（高崎商科大学）

本論文は、企業の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以下DX)の現状を明らかにし、早急に取り組むべき戦略的な課題の解決を試みるのが研究の目的である。

研究の結果、DXの構築に成功している企業の多くは、厳しい環境のなかでも、DXを積極的に進めており、DXを推進する組織の人材の考え方も内製化する傾向にある。

しかしながら、中小企業におけるDXの取組については、遅れている状況が明らかになった。そこで、今後DXを進めていくための前提として、自社のDX戦略を明確にしたうえで、持続的な経営資源の配分が大切である。

また、人材育成のためには、社員全員がDXの実践に向けて努力できるよう人事評価に反映す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く、持続的な研究会の導入などの対応策も求められる。

とりわけ、ロジスティクスDXを戦略的な視点からとらえ、全体最適化を目指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企業競争力の強化策や顧客満足度の向上策、ひいては社会貢献の適合策を実現していく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戦略、ロジスティクスDX

AI半導体が変えるエコシステム形成プロセス ：競争優位の源泉はどこへ移るのか

千島 智伸（阪南大学）

生成AIの急速な普及は、半導体産業を取り巻く競争環境を大きく変化させている。従来は、設計・製造・組立・検査などの機能分業を前提とした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以下、GVC）のもとで、企業は自らの強みを有する領域へ経営資源を集中させることにより競争優位を形成してきた。しかし、AI半導体ではGPUの性能や製造能力のみでは競争力を十分に説明できず、High Bandwidth Memory（以下、HBM）、先端パッケージ、ソフトウェア、データセンター、電力・冷却設備など、多様な補完資産が同時に機能することで市場に価値を提供する構造へと変化している。

本研究は、この変化を「企業対企業」の競争から「エコシステム対エコシステム」の競争への移行として捉えている。さらに、米中技術覇権競争や経済安全保障政策の進展により、企業は利益獲得に加え供給網の安定性やレジリエンスを含めた競争優位の構築を目指している点に着目した。また、研究の目的はAI半導体時代における競争優位の形成メカニズムを明らかにし、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研究とビジネスエコシステム研究を接続することで、技術覇権時代における競争原理の変容を多国籍企業研究の視点から再解釈することである。

エコシステム研究では、Moore（1993）が企業を多様な主体との共進化によって価値を創出する存在として位置付け、Iansiti and Levien（2004）はキーストーン企業の役割を、Adner（2012）は採用連鎖（Adoption Chain）と補完資産の重要性を示した。さらに、Jacobides, Cennamo and Gawer（2018）はエコシステムを価値創造・価値獲得の競争単位として整理した。一方、本研究ではAI半導体時代では競争優位の源泉が「ボトルネックを解消しながら補完資産を統合する能力」へ移行している点に着目し、既存理論を発展させる視点を提示する。研究方法は、日本・韓国の半導体関連企業および大学研究者を対象に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を実施するとともに、AI半導体産業の事例分析と文献調査を組み合わせ、技術・制度・企業間協力・地政学リスクへの認識を確認し解釈の根拠とした。

分析の結果、AI半導体時代における競争優位は個別企業の技術力や製造能力に加え、多様な補完資産を統合・協調・進化させる能力によって形成されることが示唆された。このことは、競争単位が「企業対企業」から「エコシステム対エコシステム」へ移行しつつあることを意味するとともに、日本と韓国の企業間取引において従来の工程分業を超えたAI半導体エコシステムの共同形成が新たな競争優位の源泉となる可能性を示すものである。今後は、日本・韓国以外の国・地域や異なるAI半導体エコシステムを対象とした比較分析を進め、本研究で示した競争優位形成メカニズムの一般化可能性について検証を深めていく。

キーワード：グローバル・バリューチェーン、エコシステム、レジリエンス、AI半導体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일본 산업구조 변화 비교 연구

— 2000~2024년 ADB MRIO 패널과 2024년 다지역 충격 감응도 분석 —

김희재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박명현 (숙명여대)

본 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를 두 층위로 결합하여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를 25년에 걸쳐 비교한다. 제1층위는 양국 단일국 산업연관표(2000년 및 2007~2024년, 35개 부문)로 장기 구조변화를 추적하고, 제2층위는 72개 경제와 기타지역을 합한 73개 지역·35개 부문 다지역표(2017~2024년)로 GVC 참여·위치와 외생 충격에 대한 구조적 노출을 측정한다. 산업구조를 구성·동인·위치·노출의 네 차원으로 분해하고, 구조분해분석(SDA), 4중 (비)유사도 지표, 업스트림니스, GVC 위치지수, 비교정태 감응도를 단일 설계 안에 결합하여 각 차원의 수렴·발산을 개별 검정한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 비중 벡터의 유사도는 총산출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모두에서 유의한 추세를 갖지 않으며, 신뢰구간 상한을 취해도 추세의 크기가 관측된 순환 진폭을 넘지 못한다. 구성 차원에서 식별되는 성분은 추세가 아니라 대외 충격에 연동된 순환이다. 둘째, 성장 동인은 뚜렷이 비대칭적이어서 한국 총산출 증가의 90.4%가 최종수요 효과인 반면 일본은 기술·수요 효과가 모두 음(-)인 이중 정체형이며, 이 대비는 네 가지 집계·표본 사양 모두에서 부호가 유지된다. 셋째, 일본의 가중평균 업스트림니스는 1.830에서 1.710으로, 가치사슬 폭은 0.567에서 0.471로 함께 축소되어 두 추세 모두 강하게 유의한 반면($p < 0.001$), 한국은 총산출이 4.08배 증가하는 동안 심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양국 위치 격차의 역전은 후발 경제의 상류 진입이 아니라 성숙 경제의 사슬 단축에서 비롯되며, 이는 규모 성장과 사슬 심화의 탈동조를 뜻한다. 넷째, 충격 노출은 서로 다른 부문 축에 정렬되어, 세계 반도체 최종수요 -10% 충격에 한국 산출은 -0.795%, 일본은 -0.422% 반응하는 반면 국내 서비스 수요 충격에서는 일본의 감응도가 한국의 2~6배에 달한다. 분석기간 말미의 AI·반도체 수요 확대는 한국 총산출 증가의 주된 통로였으나 국내 생산단계의 심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산출배분 기준 업스트림니스와 무역 부가가치 회계 기준 위치지수가 한·일에 대해 상반된 순위를 산출하며, 이 불일치가 후방참여도 수준으로 설명됨을 보인다. 두 지표는 가치사슬의 심도와 사슬 위에서 확보하는 몫이라는 상이한 대상을 측정하므로 상호 대체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는 선진국 구조변화의 단선적 수렴 가설을 기각하되, 그 기각의 근거를 부문 비중 유사도의 발산에서 찾는 접근이 취약함을 함께 보인다.

핵심어: 산업연관분석; 구조분해분석; 업스트림니스; 구조변화; 가치사슬; 충격 감응도; ADB MRIO; 한·일 비교

《 Session 1-6 》

座長: 鳥居伸好(中央大学)

場所: 거문도 C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市場ベース型資本主義にみる宗教と市場主義の動向	内橋賢悟 (新潟産業大学)	秋保親成 (流通経済大学)
2	宗教の再解釈としての日本経済思想：石田梅岩、近江商人、二宮尊徳、渋沢栄一、稲盛和夫の系譜	権五景 (新潟国際情報大学)	鳥居伸好 (中央大学)

市場ベース型資本主義にみる宗教と市場主義の動向

内橋賢悟（新潟産業大学）

本発表の目的は、経済取引における「契約の不完備性」を止揚し得る、宗教が担保する超越的道德基盤を析出し、制度経済学と宗教規範の瑕疵なき連環、あるいは相違点を定位することにある。経済学者サミュエル・ボウルズ（Bowles, S.）が活写したごとく、現代の市場取引が内包する「契約の不完備性」は、市場メカニズムの自律的な機能のみによる公平な分配の達成を必ずしも保証しない。この制度的欠陥を補完する機序として、本発表は宗教的信仰心が市場の公正性に寄与する蓋然性、とりわけアダム・スミス（Smith, A.）が析出した「同感（sympathy）」の規範がいかに機能へと至るかに着目する。スミスが『道徳感情論』において提示した「同感」の情念が、内なる「公平な観察者」として要請されるのであれば、宗教的超克それ自体が市場の不完備性を是正・抑止する道徳的紐帯となり得る。本発表は、その論理的射程を究明したい。

たとえば、マックス・ヴェーバー（Weber, M.）の宗教社会学を援用することにより、世俗内的禁欲という宗教的実践が、市場行動を高度な倫理的営為へと昇華・展開させる触媒として機能することが判明した、との解釈が成立し得るであろう。ところが特定の信仰が「強者の富」を正当化・占有化する契機を孕む限り、政府による公平な分配政策は、皮肉にも産業革命以降の市民社会を維持・機能させるための逆説的な必須条件となる。

翻って1990年代以降、米国主導の一極集中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が世界を席卷するのであれば、従来の制度的階層性には劇的な逆転現象が生じことが明らかになる。呼応してサプライサイド・エコノミクスに依拠するマクロ経済政策が制度的上位を占めるようになり、これが下位に位置する賃労働関係に対して強力な非対称的規定力を及ぼす構造をもたらしたのである。この新たな制度的階層性をイデオロギー的に支えるにとどまらず、さらに正当化したのがトランプ政権に象徴される保守主義的な宗教概念、すなわちキリスト教右派の言説空間に他ならない。

この信仰的言説と市場主義との間には緊密な「制度補完性」が構築され、サプライサイド的な市場論理が単なる経済政策の枠組みを超え、さらに市場の供給主体と政治権力すら有機的に結合させつつある。この特異な結合がもたらす「選好の内生性」、すなわち主体的な価値観の変容は、やがて市場主義そのものを自己補強的に純化・強化する装置として機能するにとどまらず、さらに過酷な「意図せざる結果」を招来するに至った。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以降の新たな制度補完性を直視するのであれば、サプライサイド・エコノミクスは自らの競争主義を原理化し、やがて労働者階級を最底辺に封じ込める「契約の不完備性」をもたらすわけである。

対して、たとえば宇沢弘文が提唱する「社会的共通資本」としての宗教的紐帯に着目するのであれば、宗教的な道德概念は市場の取引コストを削減し、公平な分配機能を相補的に代替する、包摂的な連帯システムが自らの機能を果たしたとの解釈が可能になろう。

以上を前提にして、本発表は現代の宗教規範が、市場権力者を擁護する統治の正当化装置として機能しているのか、あるいは逆に、社会的な相互信頼を醸成する「調整・包摂の機能」として貢献し得るのかを峻別する点に最大の主眼を置くことにした。このような問題意識と理論的基盤に立脚することによって、市場ベース型資本主義の最前線における宗教、市場主義、政治権力の三者が紡ぎ出すマクロ経済動態の構造的布置を精緻に解明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本発表は、古典派的市場分配メカニズムと宗教的倫理観との相克・融合のなかに生じる「制度補完性」の現代的位相を峻別し、その構造を体系的に位置づけることを究極の目的とする。

キーワード：市場ベース型資本主義、宗教的倫理観、サミュエル・ボウルズ、グマックス・ヴェーバー、制度移植、制度階層性、制度補完性、市場分配メカニズム

謝辞：辺成祐先生の御指導と力強い牽引の賜物に感謝申し上げます。本大会が日韓両国の経済・経営学における新たな知平を拓き上げ、さらに両国の未来を盤石に紡ぐ契機と至りますことを、ここに祈念致します。

「宗教の再解釈としての日本の経済思想」

：石田梅岩、近江商人、二宮尊徳、渋沢栄一、稲盛和夫の系譜

権五景（新潟国際情報大学）

本 報告は日本の 경제사상을 종교적 가치의 재해석으로 파악하고, 이시다 바이간, 오우미 상인, 니노미야 손토쿠, 시부사와 에이이치, 이나모리 카즈오로 이어지는 계보를 검토한다. 이노키 타케노부가 지적하듯이,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이래 유교 비판과 상업 긍정의 사상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경제윤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시다 바이간은 상인을 ‘시정의 신하’로 재평가하고, 절약을 사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덕으로 보았다. 오우미 상인의 ‘셋 다 좋기’는 판매자·구매자·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상업윤리로서 이러한 사상을 실천화한 것이다. 또한 니노미야 손토쿠는 호우토쿠 사상을 통해 근면, 분수지킴, 배품을 강조하며 공동체 재건의 도덕과 경제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논어와 산수』에서 도덕과 경제의 양립을 주장하였고, 이나모리 카즈오는 ‘이타의 마음’과 ‘동기 선, 사심 무(動機善なりや私心なかりしか)’를 경영의 원리로 삼아 이를 현대 기업경영으로 확장하였다. 본 보고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함으로써 일본 경제사상이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종교의 재해석이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

本報告は、日本の經濟思想を宗教的価値の再解釈として捉え直し、石田梅岩、近江商人、二宮尊徳、渋沢栄一、稲盛和夫へと連なる系譜を考察する。猪木武徳が示すように、日本では江戸期以来、儒教批判と商業肯定の思想が展開され、近代資本主義の受容以前に、合理主義的で実践的な經濟倫理が形成されていた。石田梅岩は、商人を「市井の臣」として再評価し、儉約を私利ではなく社会全体に資する徳として位置づけた。近江商人の「三方よし」は、売り手・買い手・世間の利益を調和させる商業倫理として、この思想を実践化したものといえる。さらに二宮尊徳は報徳思想によって勤勉・分度・推譲を説き、共同体再建の道徳と經濟の統合を示した。渋沢栄一は『論語と算盤』において道徳と經濟の両立を唱え、稲盛和夫は「利他の心」や「動機善なりや、私心なかりしか」を経営の原理として現代企業経営に展開した。本報告は、宗教を否定するのではなく再解釈することで、日本の經濟思想が展開してき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最後に、韓半島における經濟活動と宗教の再解釈が、これまでどのように関わってきたのかについても議論したい。

キーワード：宗教の再解釈、日本の經濟思想

《 Session 1-7 》

座長: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場所: 세미나실A

시간: 11:20~12:10

	論文タイトル	発表者	討論者
1	AI와 도시정책	김찬동(충남대)	홍진이(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태현(경남대)
2	일본형 소버린 AI의 형성과 전략적 특성: 미국, 중국, 한국과의 비교분석	박유신(현립히로시마대)	배귀희(숭실대) 박석강(전남대 HUSS사업단)

AI와 도시정책

김찬동(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현대도시의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동태적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도시정부,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것임. 정부의 공무원들은 도시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용되었음. 도시정부의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해 도시문제를 정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대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도시문제는 공간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상업과 산업의 발달, 지식과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고전적인 도시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도시정부의 도시계획, 도시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음. 그러나 현대적인 도시정부에서는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필요를 가진 다층적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고, 도시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원하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소득 격차와 그리고 공간적 불균형 문제도 더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문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절제와 배려, 도시공동체에 공공성에 대한 자각과 도시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세대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현세대에서 환경과 자원의 적절한 절약과 절제도 필요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배려와 잉여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 여기서 도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윤리, 시대적 윤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AI를 통하여 도시데이터들의 다층적 연계와 유기적 추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안을 찾고, 필요한 경우에는 AI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간 도시 계획가들이나 도시관리자들의 역할은 상당히 대체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와 도시공간구조와 자원의 재배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결국 AI에게 완전히 맡길 수는 없다. 도시AI의 활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인간의 통찰력과 판단, 윤리적 결정과 도덕적 가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일본형 소버린AI의 형성과 전략적 특징 — 미국·중국·한국과의 비교분석—

朴 唯新 (현립히로시마대학)

Nakaoka Iori (Shimonoseki City University,)

Chen Yunju (Shiga University)

왜 지금 소버린 AI에 주목하는가?

AI가 국가경쟁력 · 경제안보 · 산업정책의 중심으로 이동

다만, 각국에서 '주권'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기존 연구는 정책소개나 기술 비교가 중심이며, 일본형 소버린 AI를

국제경영론의 관점에서 비교 · 이론화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목적 일본형 소버린 AI의 전략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미중한 비교 속에서 위치짓는 것

**공통논제 : AI 시대 새로운 경제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共通論題 : AI時代における新しい経済エコシステムの構築と
グローバル経済環境の変化への対応戦略**

좌장 : 변성우(동아시아경제경영학회 회장)

座長 : 辺成祐(東アジア経済経営学会長)

기조강연 재일코리안 기업의 모국 공헌: 역사와 사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재일동포는 현재 일본에 약 80만 명이 거주(올드커머와 뉴커머)하고 있으며 재일동포 기업은 역사적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적 차별과 배제로 틈새 산업과 주변 산업에 진출했다. 초기 재일동포 3대 산업은 파친코, 야끼니쿠, 토목건축업에 집중되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먼저 일본사회의 배타성에 따른 반동 이론(Reactive Theory)에 근거한 근면 절약의 노동 가치관과 강한 민족적 자부심이며 다음으로 문화적 특성으로 사회적 상승과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여 금의환향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다. 마지막으로 민족네트워크의 존재로 일본시장에서 인적자원, 자본조달방법,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소수민족의 위기감과 유연성, 과감한 도전정신과 혁신성, 전략적 경영 실천, 자아실현과 가족생계유지를 위한 이익 추구, 그리고 성장을 위한 경제활동을 실천한 것이다.

90년대 이전의 모국 투자는 한국 정부가 1960년대 초기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할 당시 재일동포 1세 기업가들이 기술과 자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경제성장의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실행단계에서 재일동포 1세 기업가의 자본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조선학교 지원을 대대적으로 표방하였고 1980년대 이후 재일조선인상공인을 대상으로 북한 투자와 사회적 공헌을 요청하였다. 재일동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 정책은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초 박정희에 의한 ‘외자도입법’, 북한의 경우 1980년대 초 김일성에 의한 합변법(합영법)의 제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재일동포 1세 기업가의 한국 투자 시 산업별 특성은 금속공업과 관광호텔 골프장이 많았고 북한 투자는 섬유산업과 경공업에 치중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개발 초기 노동집약적인 방직 산업이 한국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남북한의 모국투자 추진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재일동포의 모국투자를 지원하는 재일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북한은 1986년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설립으로 북한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기업가의 모국 공헌의 사례는 서갑호, 신격호, 김희수, 이희건, 박충홍 회장을 소개한다. 서갑호 회장은 1929년 독일하여 사카모토 방직 설립하여 일본 방직 업계의 거물로 성장한 뒤 주일 한국 대사관 부지 기증, 1967년 방림방직 회사 변경 등으로 모국 경제에 공헌했으며, 비공식 외교 루트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신격호 회장은 1958년 본국투자가 실패했고 1967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본국에 재진출하여 1967년 4월 한국에 롯데제과 설립한 신격호는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1967년부터 본격적인 모국 투자를 통해 롯데제과, 롯데리아, 롯데호텔 등을 창립했다. 일본 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한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략가로 당시 차별 받던 재일동포 기업가로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업자 정신을 통해 시장을 확대했고, 한일 양국 모두에 뿌리를 둔 글로벌 경영전략을 구사했다.

김희수 회장은 모국에 교육(중앙대 인수 및 실패)과 문화로 이어진 ‘금의환향’의 기업가 정신을 구현한 모국 지향의 ‘금의환향’ 기업가 정신을 창업의 원동력으로 기업 성공의 지표가 되었다. 그는 유교적 가치와 민족 자긍심을 기반으로 모국 공헌을 실천했으며, 승계자로는 한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신경호 이사장을 선택했다. 이희건 회장은 1982년 7월 7일 재일동포 341명의 주주로부터 250억 원을 모아 ‘금융보국’의 새로운 한국을 만든다는 각오로 신한은행 창업했고 2009년 7월 일본에 SBJ(Shin Bank Japan)은행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은행이 일본에 진출한 제1호 현지법인인

은행이자 미국 씨티은행에 이어 일본에서 외국계 은행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성장시켰다. 2008년 '재단법인 이희건 한일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의 기본 정신, '뿌리내리자, 전수하자, 연결하자, 육성하자'로 매년 사천왕사 '왔소' 축제, 한일문화교류 역사 탐방 프로그램, 한국 일본 유학생 문화 체험프로그램, 한일 대학생 토론회, 재일한국계 민족학교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충홍 회장은 동포 2세로 1960년대부터 오사카항은 시절을 거치면서 1990년대 재일동포 자영업자 육성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나라현일한친선협회이사, 한일친선교류, 그리고 2023년 1월~현재 NPO법인 오사카왔소 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왔소' 축제를 통해 차세대 민족정체성 계승 운동으로 재일동포와 한일문화교류의 새로운 길 개척하고 있다.

모국 공헌의 의미는 재일동포 기업가의 금의환향 기업가 정신이 단순한 모국으로의 귀국이나 투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쌓은 자산과 경험을 모국 발전에 활용하려는 고도의 민족적 실천이다. 재일동포 1세대 기업가는 유교문화와 민족정체성에 기반을 두었지만 2세~3세대로 갈수록 정체성 약화, 일본 정주 지향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재일동포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문화사업, 교육사업, 글로벌 경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일 코리언 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共通論題 I

韓国における石油・石油化学・化学企業の国際競争力向上のための企業再編

稲葉和也（山口大学大学院技術経営研究科）

Key word: 麗水1号プロジェクト、蔚山産業団地、事業連携、AIによる生産革新、

韓国石油化学業界の供給過剰解消に向けた再編が進んでいる。韓国政府は、ヨチョンNCC、ロッテケミカル、ハンファソリューション、DLケミカルが参加する「麗水1号プロジェクト」を9月に承認する。2月の大山1号に続く2例目で、ヨチョンNCCの第2・第3工場を閉鎖し、年間138万5,000トンのエチレン生産能力を削減する。韓国政府の支援規模は大山1号と同様の2兆ウォン（約2,200億円）台となる。

一方、蔚山産業団地のS-OILシャヒン・プロジェクトの参加が難航している。蔚山産業団地の合意遅延が韓国石油化学産業における公平性の問題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大山と麗水で事業再編が進む中、蔚山産業団地の構造改革が進められるかどうかは韓国石油化学産業の焦点となる。また、LG化学・GSカルテックスによる麗水2号プロジェクトも利害関係が対立して遅延している。蔚山と麗水2号プロジェクトの難航が続けば、構造調整の効果が半減しかねない。主要産業団地のすべてが構造改革に参加し、生産量を調整してこそ、根本的な業界低迷問題を解決できる。

このような難題を解決するために韓国政府・地方行政組織や石油・石油化学・化学会社はどのように考え、何を実行したらよいのであろうか。

事業再編をしながら国際競争力をつけるために2000年代から対策を行ってきた日本における石油・石油化学・化学会社の事例をもとに韓国の産業団地に適応できる方法をいくつか抽出して、事業再編と国際競争力構築に向けた方策を提言したい。

複数の企業が寄り集まった産業団地をあたかも一つの工場であるかのように見なして統合運営を行い、一社単独で行うには困難であった新たな効果と経済性、新技術開発によるイノベーションが実現されることを報告する。日本ではこれらを「企業の壁、地理の壁、人の壁を越えて」と表現して事業再編を行ってきた。

韓国産業団地が目指す姿は、「地域内産業団地における全体最適化の推進」である。具体的には、産業団地の全体最適化を推進する課題として、①石油精製・石油化学・化学事業の水平・垂直統合、②産業団地インフラや産業基盤の積極的活用とPlug& Playできる事業の展開、③産業団地間の広域連携、④産業団地における全体最適化のためのAIによる生産革新、⑤海外展開、の五つが上げられる。

これらを実行するために、韓国政府・地方行政組織の支援の下、韓国企業はこれらを推進する体制を整え、必要とされる人材を確保し、研究開発を行い、積極的な投資をしてイノベーション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共通論題 II

AIとDX時代に日韓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鞠重鎬(크크 쥬중호, 국중호) (横浜(요코하마)市立大学 教授)

Key words 日本成長戦略、17の戦略分野、AI・半導体、日本企業の特徴、水平関係

日本は2026年7月21日、高市早苗政権の下、「強い経済」の構築による、強くて豊かな日本列島を実現するという目標を立て、AI・半導体など17の戦略分野を核とする「日本成長戦略」を閣議決定した。17の戦略分野においては、62の「主要な製品・技術等」に想定される官民の国内投資は、2040年度までに累計370兆円超とする、という巨大プロジェクトと言える。

本共通論題の発表では、まず日本成長戦略に係る17の戦略分野の官民投資額と各分野の投資額の割合を見ると、「AI・半導体」分野が全体の24.2%を占め、最も高い割合となっている。それだけ、日本政府は「AI・半導体」分野を投資額の面からも支えようとしている。62の「主要な製品・技術等」のうち、AI・半導体分野は、①フィジカルAI（特にAIロボット）、②フィジカル・インテリジェント・システムの中核を担う半導体、③バーティカルAI（領域特化型AI）を柱としている。これらの「AI・半導体」分野における成長戦略について、本発表では、これら三つそれぞれの内容を、重要性、勝ち筋・方向性、主な目標、主な施策、として区分した説明を行う。

日本の成長戦略は、①AI技術の応用を本格的に始めようとする段階、②17分野を核とする日本成長戦略もまだ宣言的な段階であり実際にどの程度の成長に繋がるかはわからない状況、③AI技術を支える半導体においても韓国や台湾に比べ遅れておりその挽回のための取り組み段階と評価できよう。

日本のDXに関連する取り組みの例として、熊本地方における台湾半導体大手TSMCの誘致と、北海道千歳市におけるラピダス(Rapidus)半導体工場の建設が挙げられる。それを2021年台湾の半導体製造大手TSMCの熊本県（地方）への立地（誘致）と絡む日本企業の位置づけは、TSMCをサポートする連携とも言える。

本発表では、日本企業の特徴とDX転換への遅れも指摘する。海外企業（特にアメリカのIT企業）の場合、標準化したITインフラやソフトウェアをクラウド経由に提供し、自社の開発したサービスを複数の顧客向けに活用し、規模の拡大が利益につながって来た。それに対し、日本は政策の誤りによるDX転換への遅れが響き、クラウドなど国際収支における2024年の日本の「デジタル赤字」は6兆7000億円規模と過去最高を更新し、2014年と比較するとデジタル赤字は3倍以上に膨らんだ。今後は、官が民をサポートし、国際的にも実績を伴うスタンスで、民の活躍の場を広げるようにすることが肝心であろう。

発表では、日韓の向き合い方として、戦略的協調関係、相互活用戦略、KJ網の構築など、両国がどう向き合うべきかについての提言も行う。

여수 디오션 리조트 오시는 길 (2026년 8월 19일 -21일)



교통안내

구분	자동차	열차(여천역)	버스(여천터미널)	항공
순천	40분	14분	40분	-
광주	1시간30분	-	1시간40분	-
진주, 사천	1시간40분	-	2시간	-
전주	2시간	1시간 10분	3시간	-
마산, 창원	2시간	-	2시간 30분	-
부산/김해	2시간30분	-	2시간 50분	-
서울/경기	3시간 50분	2시간 50분	3시간30분	55분

여수공항 ▶ 디오션리조트 (약 13Km, 차량이동 소요시간 약 25분)

여천터미널 및 여천역 ▶ 디오션리조트 약 6Km, 차량이동 소요시간 약 15분)

디오션리조트 ▶ 디오션 컨트리클럽 (약 12Km, 차량이동 소요시간 약 20분)

BUS 18 / 27 / 88 / 89
디오션리조트 정류장에서 하차

PARKING 동시 1,000여대 이상 수용 가능한 넓은 주차장

항공사 이용

김포 <-> 여수 매일 왕복 여수 16회 운항

여수공항 061) 689-6300

대한항공 1588-2001 / www.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1588-8001 / flyasiana.com

열차이용

용산 -> 여수역 평일 8회·주말10회 운행

여수역 061) 663-7788

여천역 061) 682-3626

※여천역에서 하차

코레일 1544-7788 / www.korail.com

고속버스

여수고속/시외버스터미널

1666-6977

여천고속/시외버스터미널

1666-4664

※여천 터미널에서 하차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02) 2088-2635

www.hiticket.co.kr (서울→여수)

www.kobus.co.kr (여수-〉서울)



디오션리조트

검색

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
(ARS)1588-0377

麗水ディフォーシャンホテルへのアクセス案内（21日 学術大会）

鉄道（列車）利用

- ✓ 龍山(ヨンサン)駅 → 麗水(ヨス)駅： 平日 1 日 8 回・週末 10 回運行
- ✓ 麗水駅： 061) 663-7788
- ✓ 麗川(ヨチョン)駅： 061) 682-3626
- ✓ ※麗川(ヨチョン)駅で下車
- ✓ コレイル(KORAIL)： 1544-7788 / www.korail.com

高速バス

- ✓ 麗水(ヨス)高速・市外バスターミナル： 1666-6977
- ✓ 麗川(ヨチョン)高速・市外バスターミナル： 1666-4664
- ✓ ※麗川(ヨチョン)ターミナルで下車
- ✓ ソウル セントラルシティ ターミナル： 02) 2088-2635
- ✓ www.hiticket.co.kr（ソウル → 麗水）
- ✓ www.kobus.co.kr（麗水 → ソウル）